

나는 내 손을 거쳐 나온 책이 베스트셀러의 언저리에도 가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 어떤 책이 잘 나가겠구나 하는 감각도 제대로 익혀본 적이 없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심을 했던 것은 그 때문입니다.

책 만드는 일이 업이 되기 전에 책은 나에게 경이(驚異)의 존재이기도 했고 또 경외(敬畏)의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땀 차마 책장을 열지 못하고 한참씩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책표지 뒤에 숨어 기다리는 문자들 혹은 그림들이 서로 어깨를 걸거나 부딪거나 때로 밀치기도 하면서 만들어내는 세계는 내게는 미답(未踏)의 세계이며, 그래서 놀막 발을 들여놓는 첫 세계이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세계'였지요. 상상력과 앎과 깨우침의 세계 혹은 즐거움과 놀이와 느낌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이와 경외의 세계를 여는 책을 내 손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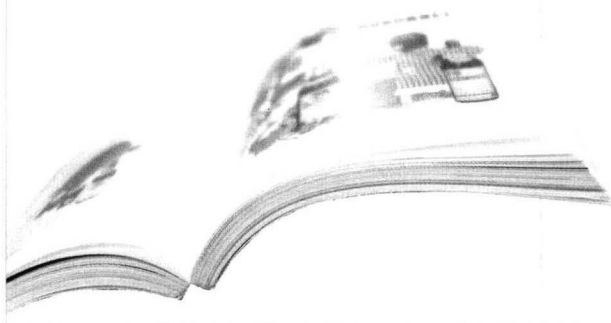
로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에게 책은 갑자기 흔한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출판이라는 세상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한 일은 원고를 읽고 다듬고 하면서 그것을 물건이 되게 만드는 일이었고, 그 다음으로 한 일은 아직 원고 형태로조차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보면서 저것이 책이라는 물건이 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일이었습니다. 책이 귀하던 시절에 책은 내게 하나의 '세계'였는데, 책이 내 앞에 갑자기 흔해지면서 그것은 한갓 '물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역전'을 가져오게 했을까요?

책의 독자이던 사람이 책의 편집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물론 대답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충분한 대답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편집자로 살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책을 불편해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잘 읽지도 않았고, 읽더라도 일거리로서만 읽었지요. 늘 책이 쌓여 있었지만 나로서는 그것들을 다시 경이와 경외의 심정으로 경험하기가 까마득한 일처럼만 느껴졌습니다. 책을 읽을라치면 그렇게 초조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그토록 책과 불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징후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병으로서 인식하지 못한 것이죠.

삼십대, 겉모습만 보자면, 나에게 그 십 년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과 함께 산 세월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책과 관련한 이야기들 속에 묻혀 살고, 책과 관련한 사람들을 만나며, 장차 또 한 권의 책이 될 문자들 속에 반쯤은 넋을 놓고 지냈으니까요. 어떤 때는 나의 뼈까지도 녹여서 책을 만들기라도 할 것처럼 며칠 밤을 새며 일을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을 앞에 두고도 나는 자꾸만 낯선 느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책과 더 이상의 인연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 단절감, 배신감 같기도 했죠. 그러고 보면 삼십대 그 십 년을 나는 온전히 책과 동떨어져 살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나의 세계와 내가 만든 책의 세계가 일치하는 지점이 갈수록 줄어드는 십 년이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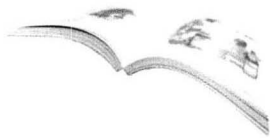
그런 가운데 내 마음 속에 조금씩 어떤 열망이 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열망은 지난 내 삶에 대한 반성, 그리고 깨우침과 함께 왔습니다. 내가 만든 책에 공경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은 바로 내 삶에 공경을 보내지 않고 있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만든 책에서 경이로움을 느

불혹을 넘어서 드는 생각들, 살아 있는 책에 대한 단.상.



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내 삶에서 더 이상 경이로움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만든 책과 함께 나란히 '물건'의 경지로 추락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계가 아닌 하나의 물건으로서 책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세계가 아닌 하나의 물건으로서 내 자신을 대하고 있었던 거지요. 책이 '생산' 되고 '유통' 되는 자본주의의 시스템이 책과 그 책을 만드는 사람을 그렇게 몰아간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문제는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활동을 물건의 범주로 전락시키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요즘엔 오래된 책이 귀합니다. 책을 만드는 사람 자신에게도 오래된 생각이 머물 틈이 별로 없지 않군요.

김광석은 <서른 즈음에>에서 이미 인생을 깊이 돌아보고 있습니다만, 나는 마흔 즈음에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기 시작한 듯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살아 있는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



군요. 산 책과 죽은 책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지요. 이런 책은 만들어야 하고 저런 책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그렇고요. 그런 것은 그 자신에게서조차 늘 변해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좋은 책, 나쁜 책이라는 것도 그러고 보면 절대적인 구분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나에게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향해 '살아나라'고 외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은 것이니까요. 이현주 목사가 쓴 <물물과 나는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쓰레기통이 이 목사께 이렇게 한마디를 하지요. "사물을 볼 때마다 마음을 모아서 주의 깊게 보아라. 그렇게 주의 깊게 볼 때 너는 내가 보는 사물과 함께 깨어나게 된다..." 무릇 죽어 있던 것이 어떻게 깨어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뭔가가 살아난다면 꼭 거기에는 뭔가의 죽음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책의 경우를 봐도, 책은 나무가 죽지 않으면 생겨나올 수가 없지요. 나무만은 아니겠지요. 나무의 죽음은 그 많은 죽음을 대표한 죽음이겠지요. 그러니 책이 흔해졌다는 말은 나무의 죽음이 흔해졌다는 말이기도

이홍용·도서출판 삼인주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살아 있는 책을 만든다고 한다면, 우선 이렇게 흔해진 나무의 죽음을 돌아보는 일, 한 권 한 권의 책을 위해 몸을 공양하는 나무에게 정성과 공경이 담긴 마음의 물을 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책을 만들 때 책도 살고 나무도 살고 나도 살아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지요.

우리는 책을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쏟을 여유가 없지요. 나는 내 손으로 기획하고 만들어진 책 가운데 과연 몇 권이나 누군가에게 내 마음이 담긴 책이라며 기쁘게 선물할 수 있을지 자문해 봅니다. 책의 '기획'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만들까 하는 쪽으로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책을 적게 만들까 하는 쪽으로의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좀 바보 같은 역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월한 얘기밖엔 할 재간이 없군요. 그래도 책을 만들면서 행복하시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